

화교와 말레이 : 불편한 이웃

정재우*

I. 들어가는 말

II. 말레이시아 개요

III. 화교와 말레이의 관계

IV. 동 말레이시아 선교상황

V. 이웃(NEIGHBORHOOD)과 공공신학(PUBLIC THEOLOGY)

VI. 나가는 말

* 말레이시아 사바 신학교 선교학 교수

■ 한글초록

이 논문은 역사적 선교적 관점에서 말레이시아의 화교와 말레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근대 말레이시아는 영국, 화교, 그리고 말레이와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복잡한 상호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형성이 되었다. 화교들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의 확산은 다른 민족, 특히 말레이들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다민족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건국 이후 하나된 말레이시아를 표방하며 민족 간의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지만 “5/13 사태”와 “신경제정책” 그리고 일련의 종교 분쟁으로 화교와 말레이 민족 간의 갈등은 계속되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정부의 친 이슬람 정책으로 갈등의 골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그간 화교 기독교인들은 중국계나 원주민 같은 비 말레이 사역에 치중을 하였다. 화교 기독교인들은 불편한 관계에 있는 말레이와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하며 화교교회들은 공공신학을 기반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공익에 관심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주제어: 화교, 말레이, 갈등, 공공신학, 말레이시아

I. 들어가는 말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한국 속담이 있고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다. 이와 비슷하게 “멀리 있는 물로는 가까이 난 불을 끄지 못한다”(遠水不救近火)는 중국 속담이 있는데, 먼 곳의 일가친척은 가까운 이웃만 못하다라는 뜻이다. 좋은 이웃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다. 위기의 상황에 처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이웃이 아주 부담스러우면 같이 사는 것이 고역일 수밖에 없다.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말레이와 화교들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이웃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화교들은 말레이를 게으르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말레이들은 화교들이 말레이시아의 모든 자원들을 착취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두 민족 간의 진실한 소통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¹

다민족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는 인종간, 종교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데, 특히 무슬림인 말레이계와 화교 들과의 관계는 늘 긴장 관계에 있어왔다. 그래서 보통 화교들, 말레이들, 인도인들이 따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아간다. 이 같은 현상은 수도가 있는 서 말레이시아 뿐만 아니라, 사바, 사라왁 주가 있는 동 말레이시아 농촌 지역에 가도 비슷하다.

영국 식민지 독립 이후 정치는 말레이계, 경제는 중국계가 차

1 이 부분은 본인이 말레이시아 화교와 결혼을 하고 말레이시아에 살면서 화교들과 말레이들과 교제를 하면서 느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다. 화교들 상당수는 말레이와 친구로 지내는 경우가 별로 없으며, 특히 화교 기독교인들은 더욱 이런 성향이 강함을 본다. 화교들끼리 말레이로 대화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중국어나 영어를 쓰며 말레이어는 주로 말레이가 많은 정부관청을 방문할 때만 쓴다. 화교들은 말레이시아 시민이라는 의식보다는 화교라는 유대의식이 더욱 강하다.

지하면서 이 두 그룹 사이에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1969년 “5·13 사건”(May 13 Incident)을 거치면서 정치, 경제, 종교, 교육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 두 민족 간에 갈등이 심한 편이다.² 더욱이 COVID 19 팬데믹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었다.

본 연구는 말레이시아 내에서의 화교의 역사와 말레이와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동 말레이시아 교회와 선교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화교교회들이 불편한 이웃인 말레이를 대상으로 어떻게 대화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말레이시아 개요

해외 화교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나라는 말레이시아이다. 화교는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경제, 교육 등 산업의 핵심분야를 거의 독점하고 있다. 도시 어디를 가도 중국어 간판이 눈에 들어오며 중국어 방언들이 들리는 곳이다.

아시아 대륙의 동남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말레이시아는 말라야(Malaya)로 알려진 반도와 남중국해 보르네오 섬의 사라왁(Sarawak)과 사바(Sabah)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반도와 섬들은 제2차 세계 대전 전까지 영국 식민지의 일부였다. 1957년 독립 이후 말라야는 11개 주로 구성된 말라야 연맹(Federation of Malaya)이 되었다.

2 Peter N. Stearns and William L. Langer, *The Encyclopedia of World History: Ancient, Medieval, and Modern, Chronologically Arranged*, 6th ed. (Boston: Houghton Mifflin, 2001), 1016.

말레이시아는 인종적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1997년 의 자료에 의하면, 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약 1,500만 명의 인구 중 말레이(Malay)가 55퍼센트, 중국인 34퍼센트, 인도인 10퍼센트, 그리고 오랑아슬리(Orang Asli)라 불리는 원주민 부족이 나머지 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서 말레이시아의 종교 인구는 무슬림 56퍼센트, 불교-도교 32퍼센트, 힌두교 8퍼센트, 기독교 2퍼센트, 그리고 기타가 2퍼센트이다. 이민족인 화교가 인구의 34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점이 흥미롭다. 태국의 화교들은 겨우 1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3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2020년 정부통계에 의하면, 말레이시아 전체 인구는 3,200만 명으로, 그 중 부미푸트라(Bumiputera, 말레이와 기타 소수민족들)가 69.6퍼센트, 화교 22.6퍼센트, 인도인 6.8퍼센트, 그리고 기타 1퍼센트로 집계되었다. 화교들과 인도인의 인구 비율이 많이 줄었는데 특히 화교들의 인구 비율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러한 통계의 배경에는 화교들이 말레이에 비해 출산을 적게 하고 유학이나 이민 등 외국으로의 인구유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영어권, 즉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등에 유학을 많이 떠나는 데, 많은 경우 다시 말레이시아로 돌아오지 않고 그 나라에 정착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직업을 구하기 힘들고 민족간에 갈등이 심한 말레이시아에 다시 오기 보다 유학을 간 나라에서 정착을 함으로써 선진국으로 이민을 가는 화교들이 많이 있다.

동남아시아 말레이는 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이다. 그리고 태국남부와 브루나이 사람들도 포함이 된다. 필리핀 전설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과의 교제를 위해서 토기로 사람을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에 충분히 급지를 못해서 백인

이 나왔고 둘째는 너무 구워서 흑인이 나왔고 마지막 적당하게 구워서 나온 민족이 말레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기원전 1000년에 인도에서 이민 온 몽골족의 변종이 말레이고 “빙하시대” 때 걸어서 인도네시아까지 왔다고 한다.³

1세기 무렵 불교와 힌두교 종교를 가진 인도인 정착민들이 CE 500년까지 동남아시아에 정착을 하였다. 7세기 말 남수마트라 팔렘방(Palembang) 지역에 불교 스리비자야 제국(The Empire of Srivijaya)이 세워졌다.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막강한 힘을 얻게 되었으며 현재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와 말라야 반도, 그리고 태국 남부에 이르는 거대한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 제국은 수도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말라야 반도 말라카(Malacca 또는 Melaka)로 옮겼지만 13세기 인도네시아 자바에 세워진 마자파히트(Majapahit) 제국과 태국의 시암(Siam)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다. 15세기 초의 말라카 왕국이 스리비자야 제국을 계승하게 되었고, 그 후 말라카 왕국은 1511년 이후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를 겪게 된다. 영국에 의해 중국과 인도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들어옴으로써 종교적, 문화적, 그리고 언어적으로 복합된 사회를 이루게 되었다.⁴

다음은 화교와 말레이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화교역사, 화교와 말레이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 종교적 관계를 알아보고 마지막 화교들의 세계관을 간략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3 Robert Day McAmis, *Malay Muslims* (Grand Rapid,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2), 3-4.

4 이한신, “이슬람과 말레이시아 포교 방법과 기독교 선교 전략을 위한 비교 연구”, Th.M. diss.,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9-10.

Ⅲ. 화교와 말레이의 관계

1. 역사적 관계

일반적으로 “화교”(Overseas Chinese)란 중국에서 태어나서 다른 나라에 정착하여 사는 사람을 말한다. 화교공동체는 마치 1세기 기독교사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처럼 비록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타이완, 홍콩, 미국, 등등 여러 나라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지만 중국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⁵ 보통 중국 본토를 떠나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지칭한다. 세대를 넘어 가면서 그 나라에 국적을 자연스럽게 얻은 중국인을 “화인”(華人)이라고 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화교”(華僑)로 용어를 통일하고자 한다.

말레이시아 화교들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요셉 해리 하이네스(Joseph Harry Haines)는 화교들이 기독교 시대 초기에 처음으로 해외로 이주했다고 주장한다. 당나라와 송나라(7-13세기)를 거치며 19세기 말에 절정에 달했다. 1405년에서 1433년 사이에 중국의 정화(鄭和 Zheng He 또는 Cheong Ho) 제독과 그의 동료들은 페르시아만까지 서쪽으로 여행했고, 다른 중국 배들이 아프리카 해안까지 도달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시기에 동남 아시아에 있는 지방 왕국의 많은 통치자들은 중국의 통치를 인정하였다.⁶

정화장군은 명나라 황제의 사신이 되어 광둥사람들(Cantonese)과 복건사람들(Hokkien)을 그의 보물선에 태워서 남중국해와

5 Joseph Harry Haines, *Chinese of the Diaspora* (London: Edinburgh House Press, 1965), 7.

6 Haines, *Chinese of the Diaspora*, 9.

인도양을 탐험하고 무역을 하게 하였다. 명나라 황제가 당시 수백 척의 배들과 수만 명의 선원들을 정화장군과 함께 보내었는데, 이는 먼 곳에 있는 나라들을 명나라의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⁷ 1459년 명나라 황제는 항리포(Hang Li Po)를 여자수행원들 500명과 함께 말라카(Malacca)로 보냈다. 항리포가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것을 수락하고 만수르 샤 술탄(Mansur Shah Sultan)과 결혼한 후에 많은 수행원들이 술탄을 섬기는 관리들과 결혼하였다.⁸ 말라카에는 정화장군을 기념하는 삼포콩 사원(Sam Po Kong Temple)과 항리포 우물(Hang Li Po Well) 등 많은 유적들이 남아있다. 이곳은 중국인 여행객들이 반드시 참관하는 성지와 같은 곳이다.

1400년경 번창하는 해상 무역에 종사하기 위해 온 중국 복건성(Hokkien) 무역상들이 말라카에 작은 공동체를 세웠는데 이것이 최초의 화교공동체이다. 당시 중국 복건성에서 온 남자와 현지 여인들이 결혼을 하였다. 그 후예들은 오늘날 말레이시아 화교 인구 내에서 극히 소수인데, 주로 말라카(Melaka)와 페낭(Penang)에 거주한다. 중국에서 온 남자들은 “바바”(Babas)로 불리고, 여자들은 “논야”(Nyonya)로 불린다. 바바 문화는 주로 중국적이지만 말레이와 영국의 문화적인 특징과 혼합되어 있다. 바바는 말레이어 언어, 복장, 식단을 차용했고 중국의 종교, 문화, 가족적 관습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특이한 점은 이들 가운데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⁹ 보통 무슬림과 결혼을 하기 위

7 Edward L. Dreyer, *Zheng He: China and the Oceans in the Early Ming Dynasty, 1405–1433* (New York: Person Longman, 2007).

8 “Overseas Chinese,” *New World Encyclopedia*, last modified May 15, 2013, http://www.newworldencyclopedia.org/entry/Overseas_Chinese (accessed August 15, 2015).

9 Lynn Pan and Center Chinese Heritage, *The Encyclopedia of the Chinese Overseas*

해서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

대규모 이민은 영국인들이 만든 새로운 경제적 기회들에 의해 촉발되었다. 포르투갈(1511년), 네덜란드(1641년), 영국(1755년)의 서구 식민주의가 정착되고 나서야 해외로 나간 중국인이 크게 늘어났다. 중국이민으로 말미암아 유럽인들은 대규모 국제적인 무역을 하게 되었고, 중국인들은 유럽인들의 보호 하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¹⁰ 19세기는 대규모 국제 이주의 시대였다. 영국 식민지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된 후 서구 식민지 통치자들은 중국과 인도에서 아프리카 노예들을 대신해서 고용노동계약을 맺은 노동자들로 대체하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노동자 이동은 증가했다.¹¹

그러나 청나라 왕조(淸, 1644-1911)는 중국인들이 그들의 나라를 떠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다. 왜냐하면 당시 정부는 사람들을 그 나라의 재산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종교적으로, 조상 숭배는 중국인들이 그들의 고향을 떠나는 것을 막는 주된 이유였다. 빅터 퍼셀(Victor Purcell)은 조상을 섬기지 않고 조상의 묘를 떠난 자들은 불효를 저질렀다는 죄책감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다.¹²

화교는 대부분 광동성과 복건성의 두 남동부 해안 지방 출신들이었다. 19세기 초에는 “밀어내기”(push) 즉, 인구 폭발, 기근, 정치적 불안, 그리고 다른 이유는 “당기기”(pull) 즉, 대부분 경제적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172.

10 Haines, *Chinese of the Diaspora*, 10. See Kenneth Scott Latourette, *Christianity in a Revolutionary Age: A History of Christianity i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1st ed, vol.

11 Pan and Chinese Heritage, *The Encyclopedia of the Chinese Overseas*, 56.

12 Victor Purcell, *The Chinese in Malaya*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48), 17-18.

이유로 해외에서 더 나은 삶과 더 많은 기회 등의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그 수가 급증했다.¹³ 두 번의 “아편 전쟁”(Opium Wars 1840–1842, 1858–1860) 이후 청나라 정부가 더 많은 항구를 개방을 하였고 이로 인해 대규모의 이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¹⁴

이런 이민의 역사를 가진 해외 화교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사업 감각이 예민하며, 끈기 있게 일하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자주 언급된다.¹⁵ 이런 특수한 상황 가운데 화교들이 말레이시아에 정착을 했으며 현재 말레이시아 인구의 20퍼센트가 조금 넘는 상황에서¹⁶ 정치, 경제, 문화 등 많은 부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토착민인 말레이와 긴장과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정치적 관계

말레이시아를 통치한 영국은 “인종 분류와 민족 구획화”(racial categorization and ethnic compartmentalization)에 근거하여 지역 인구를 분리했다.¹⁷ 그리고 영국과 말레이시아 술탄들, 그리고 중국

13 Enoch Wan, “Mission among the Chinese Diaspora: A Case Study of Migration and Mission,” *MISSIONOLOGY* 31, no. Part 1 (2003): 35; Haines, *Chinese of the Diaspora*, 17.

14 Xiao An Wu, *Chinese Business in the Making of a Malay State, 1882–1941: Kedah and Penang*. Chinese Worlds (London: RoutledgeCurzon, 2003), 18.

15 Haines, *Chinese of the Diaspora*, 31.

16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화교들과 인도계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1957년엔 37.2 퍼센트, 2013년엔 24퍼센트, 2030년에는 19.6퍼센트로 예상되고 있다. “Falling Malaysian Chinese population worrying: Analysts,” *The Straitstimes*, January 24, 2017, <https://www.straitstimes.com/asia/se-asia/falling-malaysian-chinese-population-worrying-analysts#:~:text=Asli%20chief%20operating%20officer%20Ng,in%20the%20community%2C%20she%20said> (accessed May 14, 2021).

17 Lian, *Race, Ethnicity, and the State in Malaysia and Singapore*, 99.

인들은 각자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도 하였다. 근대 말레이시아는 바로 이런 서구 열강과 서로 다른 민족 간의 복잡한 상호관계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영국은 중국에서 온 화교들의 보호자라고 주장하였지만, 그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정치적, 상업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말레이 통치자들은 그들의 정치적 위치와 경제적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영국과 화교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화교들은 사업적으로 정당성을 인정 받았고 말레이에 의해 묵인이 되었다. 그렇지만 이민자라는 지위와 중국과 동남 아시아 사이의 애매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그들의 정치적, 법적 정체성이 확립이 되지 않았다.¹⁸

이런 상황에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화교와 말레이 그룹의 지도자들 사이에 동맹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서양 교육을 받은 전통적인 엘리트들인 말레이들과 부유한 말라야 출신의 사업가이며 서양 교육을 받은 소수의 화교들이었다. 이들 두 파벌은 독립 후 말레이가 정치와 행정권을 장악하고 중국인이 경제 활동을 통제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말레이들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인종간 폭동인 “5·13 사건”(May 13 Incident)이 일어났다. 사실 화교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력을 증가시켰고 양쪽 영역을 지배하고 있었다.¹⁹

1969년 총선에서 집권여당에 대한 민심의 지지가 크게 떨어졌다. 선거에 승리한 화교의 두 야당은 축하 집회를 진행하였고, 화교들의 거리 경축은 말레이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이 말레이들의 반대시위를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 인종간 폭

18 Wu, *Chinese Business in the Making of a Malay State, 1882-1941*, 6.

19 Peter N. and Langer, *The Encyclopedia of World History*, 1016.

력이 발생하여 통제가 불가능한 전쟁터가 되었다. 1969년 5월 발생한 대규모 중국계와 말레이계와의 폭력사태는 말레이시아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폭동이 다민족 사회에서 발생하는 자발적인 인종간의 폭력이 결코 아니라고 믿었다. 수아람(SUARAM, Suara Rakyat Malaysia) 지도자인 쿠아기아송(Kua Kia Soong)은 “5·13 사건”이 구시대적인 말레이 귀족정치를 대표하는 툰쿠 압둘 라흐만 (Tunku Abdul Rahman 당시 말레이시아 총리)을 축출하기 위한 새로운 말레이 국가자본주의 계급의 쿠데타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말레이시아 정치사의 진로를 바꾸고 새로운 경제정책(NEP, New Economic Policy)을 통해 말레이 자본가 계급을 보장하는 정치적 타도였다.²⁰

3. 경제적 관계

“5·13 사건” 이후 민족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1971년 말레이시아 수상, 툰 압둘 라작(Tun Abdul Razak)에 의해 도입된 “새로운 경제정책”(NEP)은 부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도록 되어 있었다. 모든 말레이시아인의 빈곤을 퇴치하고, 말레이시아 사회를 구조조정 하여서 경제적 기능과 지리적 위치를 가진 인종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²¹ 그렇지만 그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말미암아 생활의 모든 면에서 특히 화교와 인도인들에 대한 말레이들의 특혜가 확대되었다. 화교들은 정부 계약과 대학 장학금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지지하는 반

20 Kia Soong Kua and Suaram, *May 13: Declassified Documents on the Malaysian Riots of 1969* (Petaling Jaya, Selangor, Malaysia: SUARAM, 2007), 3.

21 Lian, *Race, Ethnicity, and the State in Malaysia and Singapore*, 112.

면, 많은 말레이들은 지속적인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²² 대학입학에 있어서도 말레이 우대정책으로 많은 화교들은 국내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고 해외 유학의 길을 택하고 있다. 직업을 얻는 부문에 있어서도 말레이에 대한 특혜로 정부 부문은 거의 말레이들이 차지하고 있고 화교들은 식당 등 개인 사업에 집중하는 편이다.

2018년 12월 8일 마하티르(Mahathir) 정부가 50년간 시행된 이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민족 간의 불평등 조항으로 인해 긴장을 야기시킨다고 판단해 이 정책을 폐지하려고 했지만 말레이의 대규모 시위로 중단되었다. 계속적으로 개혁의 필요를 말하고 있지만 말레이 우선주의 정책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²³

4. 문화적 관계

화교들의 문화도 말레이 문화와 종종 갈등을 빚어왔는데 세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는 화교들이 전통적인 축제때 마다 집단 적으로 추는 사자춤(Lion Dance) 이슈이다. 사자춤이 종교적인 것인가 아니면 문화적인 것인가 하는 논쟁이다. 많은 이들은 종교적인 요소와 문화적인 요소가 다 같이 혼합되어 있다고 믿는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초기에는 이 사자춤이 중국계의 민족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경계를 하였다. 그래서 사자춤 행사를 하려면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했다. 신년(Chinese New Year) 때와 특별한 시기에 이 행사를 허락하고 있다. 둘째는 중국 무덤과 관련된 논란이다. 말라카에 있는 부킷치나(Bukit

22 Ibid., 99-109.

23 David Boyle, "Reform in Malaysia Still Beholden to Racial Politics," *East Asia Pacific*, Jan 4, 2019, <https://www.voanews.com/east-asia-pacific/reform-malaysia-still-beholden-racial-politics> (accessed September 9, 2021).

Cina) 무덤은 중국 본토 이외 지역에 있는 가장 큰 화교무덤이다. 15세기 말라카 술탄과 결혼한 중국여인(Hang Li Po)과 같이 왔던 중국인들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다. 이곳에는 12,000개의 크고 작은 무덤들이 있다. 이 무덤으로 인해 화교들과 말레이들의 충돌이 있었지만 정부의 중재로 평화롭게 해결이 되었다. 셋째는 중국어 사용 논란이다. 화교들은 중국어 사용을 강조해왔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오랫동안 말레이시아 정부와 피를 말리는 교섭을 해왔다. 말레이시아 독립 이후 이 문제는 민족주의 성향의 말레이와 화교들 간의 긴장을 초래했다. 중국어 사용은 화교들의 연합과 정체성 확립에 절대적으로 중요했다.²⁴

5. 종교적 관계

말레이와의 정치 경제적 긴장 외에 종교적인 긴장감도 있다. 사실 종교적인 부분은 말레이, 중국계, 인도계 등 서로 다른 민족들이 화합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이기도 하다. 19세기에 영국이 말레이시아에 대한 지배권을 얻은 후, 1874년에 “팡코르 조약”(Pangkor Engagement)을 시행했는데, 이를 기초로 각각의 주들과 조약을 맺었다. 영국관리들은 각주의 술탄의 최고고문으로 활동을 하며 말레이의 관습이나 종교(이슬람)에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영국 정부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말레이 무슬림 사역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²⁵ 대신 그 지역의 화교와 인도인

24 J. Paul William Rajashekar, Lily Wu, and Pongsak Limthongviratn. *Asian Lutheranism Which Way?* (Chicago: ELCA Commission for Multicultural Ministries, Dept. for Asian Ministries, 2000), 27-28.

25 Ronald Provenchal, “Islam in Malaysia and Thailand,” In *The Crescent in the East: Islam in Asia Major*, ed. Raphael Israeli (London: Curzon Press, 1982), 146.

들을 위한 선교활동은 허용했다.²⁶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는 화교 교회들이 많이 있고 일부 인도교회들도 있지만, 말레이 교회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²⁷

말레이시아의 종교는 인종에 따라 정해진다. 말레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교도인 반면, 비 말레이들은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정부와 정치를 지배하는 말레이계 무슬림들은 교육, 종교, 그 밖의 분야와 관련하여 기독교계 화교들을 박해하고 있다. 이슬람교도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것은 불법이지만, 정령숭배를 믿는 부족들과 화교들이 이슬람교도들이 되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07년 12월 10일 가톨릭 헤럴드(Catholic Herald) 신문칼럼에 말레이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알라(Allah)”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무슬림들의 반발을 가져와서 그 용어를 기독교인들이 사용을 못하게 되었다. 그 후 2년 동안의 법정 소송으로 기독교인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극단주의 무슬림들에 의해 여러 교회들이 방화 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총리였던 나집 라작(Najib Razak)은 직접 교회들을 찾아가 보상을 약속했고 신속하게 범인을 잡아 혼란을 마무리했다.

또 다른 사건은 기독교로 개종을 한 아잘리나 자일라니(Azalina Jailani)가 본인의 이름을 리나 죠이(Lina Joy)로 바꾸고자 했는데 법원은 그녀가 종교를 바꾸지 못하도록 했고 이름만 바꾸도록 허용을 했다. 그리고 기독교 남자 친구와의 결혼을 허가하지 않아

26 McAmis, *Malay Muslims*, 38.

27 말레이시아 정부의 강력한 이슬람정책으로 말레이가 중심이 된 교회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가정교회 형태의 비밀 모임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결국 말레이시아를 떠났다.²⁸

2017년 2월에 발생한 사건은 화교 교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무슬림 전도사역을 마친 레이몬드 코(Raymond Koh)목사와 일행들이 집으로 가던 중에 15명의 검은 복면을 한 괴한들에 의해 납치가 된 사건이다.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불행한 사건이다. 여러 가지 증거들과 증언들을 근거로, 많은 기독교인들은 정부 종교국에서 실행한 사건이라고 믿고 있다. 그 동안 말레이 전도나 선교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었던 많은 화교 기독교인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연합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2017년 4월 5일 말레이시아 최초로 72개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연합으로 기도회를 개최하였다.²⁹

6. 화교들의 세계관: 체면문화와 문화적 비동화(Culture Unassimilability)

이와 같이 화교들과 말레이와의 갈등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교들은 말레이와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나 이슈들에 대해서 대체로 피하거나 침묵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화교들의 세계관과 관련이

28 Teresa Chai, "Christian Mission in Religious Pluralistic Society: Christian Mission in Religious Pluralistic Society with Special Reference to Malaysia," in *Christian Mission in Religious Pluralistic Society* ed. Daniel J. Kim (Seoul Korea: East-West Center for MRD, 2019), 159-160.

29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었던 한국 선교사의 기도편지 내용이다. 아내 수잔나 코 사모는 한국을 방문하여 이 사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였다. 김대진, "말레이시아 정부는 레이몬드 코 목사 실종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라," *코람테오닷컴*, November 27, 2019, <http://www.ks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00> (accessed May 15, 2021).

있다고 생각한다. 유진 나이다 (Eugene Nida)는 문화를 세가지로 나누었는데, 바로 “두려움 기반”(fear-based culture), “수치심 기반”(shame-based culture), “죄책감에 기반한 문화”(guilt-based culture)이다.³⁰ 많은 아시아 문화들, 특히 화교들은 체면을 매우 중요시하는 수치심 기반을 가진 문화이다. 또한 그들은 사회와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유교 사상을 따른다. 화교들은 사람들과 직접 부딪히지 않는 방식을 중시한다. 그리고 체면을 잃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피해야 한다. 화교 문화에서 체면을 잃는 것은 개성이나 인간성을 잃는 것과 같은 것이다. 화교들은 체면과 체면이 깎이는 것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결국 자아를 상실하게 된다. 화교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가?”라고 자주 묻는 경향이 있다. 이런 체면 문화로 인해서 말레이와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또한 화교들은 다른 문화와 잘 동화되지 못하는 성향이 있다. 이를 문화적 비동화(cultural un-assimilability)라고 한다. 말레이시아의 화교 가정들은 아직도 5대째 복건성이나 광둥성의 어떤 마을에서 왔다고 말한다. 교육을 받은 화교들은 중국이 “중세왕국(Middle Kingdom)”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무의식적인 우월감이 종종 나타낸다.³¹ 일반적으로 화교들은 말레이와 원주민에 대해서 경제적, 문화적인 우월의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화교들은 말레이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치, 경제, 문

30 Eugene A. Nida, *Customs and Cultures: Anthropology for Christian Missions* (New York: Harper, 1954), 150.

31 Haines, *Chinese of the Diaspora*, 11-13.

화, 종교, 그리고 세계관의 다름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침묵이나 무시 또는 전가를 함으로 책임을 미루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말레이시아 내에서의 말레이인과 화교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다음은 동 말레이시아 교회 상황과 선교 상황을 알아보려고 한다.

IV. 동 말레이시아 선교상황

2010년 정부 통계에 의하면, 말레이시아의 종교인구 분포는 이슬람이 61.3 퍼센트, 불교 19.8 퍼센트, 기독교 9.2 퍼센트, 힌두교 6.3 퍼센트, 기타 3.4 퍼센트이다.³² 대략 2.6 백만 명이 기독교인들이며 동 말레이시아의 사바주와 사라왁 주에 전체 기독교 인구의 3/2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서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의 영향력이 강하고, 동 말레이시아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비교적 강한 편이다. 사라왁은 기독교의 인구가 이슬람보다 더 많다. 그런데 개종이나 인구 이동 등의 영향으로 최근 동 말레이시아에도 무슬림들이 급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는 천주교를 비롯한 개신교 여러 교단들이 있다. 필자는 그 중에 중국 화교들이 많은 교단인 바젤교단과 원주민들이 많은 보르네오 복음 교단을 중심으로 동 말레이시아 교회 상황을 알아보려고 한다.

32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Official Portal, "Population Distribution and Basic Demographic Characteristic Report 2010," May 8, 2011, https://www.dosm.gov.my/v1/index.php?r=column/cthemebByCat&cat=117&bul_id=MDMxdHZjWTk1SjFzTzNkRXYzcVZjdz09&menu_id=L0pheU43NWJwRWVVSZkl-WdzQ4TlhUUT09 (accessed February 8, 2021).

1. 바젤 교단

화교가 주축이 된 바젤 교단(BCCM, Basel Christian Church of Malaysia)은 1815년에 세워진 스위스 “바젤 선교회”의 중국선교와 동남아시아 화교선교로 인해 형성된 교단이다. 1852년 레흘러(Lechler)가 중국 하카족(Hakka)을 위해 헌신하며 남중국과 말레이시아 사바지역에 하카 교회들을 세웠다. 하카 족이 동 말레이시아로 오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첫째, 종교적인 탄압이다. 하카들은 1851년 태평천국의 난(Taiping Revolution) 때 리더인 홍수전(Hung Hsui-Chuan)과 함께 하였다. 그로 인해 청왕조의 핍박을 받게 되었고 이어 의화단 사건 (Boxers' Rebellion 1899-1900)으로 외국인들과 더불어 기독교인 하카인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은 동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으로 피하게 되었다. 둘째, 당시 청나라 말기 중국인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너무 피폐해져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동 말레이시아로 오게 되었다. 이들 하카인들은 일주일에 6일을 노동을 하고 주일 하루 같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바젤 교회의 시작이다. 2002년 기준으로, 18,000명의 교인과 35개의 화교 예배, 80개의 말레이어 예배가 있고 사바신학교, 3개의 중학교, 그리고 14개의 초등학교가 있다.³³

2. 보르네오 복음교단

개신교 교단 중에는 가장 큰 보르네오 복음교단(SIB: Sidang Injil Borneo)이 있다. 주로 토착민(사바지역: 카다잔 두순 Ka-

33 Chen Lip Sion, “A Brief History of the Basel Christian Church of Malaysia,” 2003. 미출간 소논문

dazan-Dusun, 린 다유 Ren Dayu, 무룻 Murut, 룡구스 Rungus, 사라왁지역: 룡 바왕 Lun Bawang, 비다유 Bidayu, 끌라빗 Kalabit, 이반 Iban)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교단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8년에 교단 교회수는 1,477개이다.

그 외에 가톨릭 교회 수는 2,000여개, 성공회는 54개, 감리교는 50여개, PCS(Protestant Church of Sabah)는 327개, 침례교가 50여개 있다.³⁴

동 말레이시아 교회들은 기독교 인구가 비교적 많아서 그 동안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누려왔다. 기독교 주지사도 있었고 정치인들도 기독교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했다. 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 왔으며,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다.³⁵ 말레이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무슬림 선교는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무슬림 전도사역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말레이를 위한 구제와 사회참여는 교회이름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다. 최근에 기독교에 우호적인 주지사가 선거를 통해서 교체가 되면서 상황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또한 COVID 19의 영향으로 종교간, 특히 기독교와 이슬람의

34 Pusat SIB, Sidang Injil Borneo Handbook and Rule, Kota Kinabalu, 2013, 7; The Headquarters of Catholic Directory and Ordo of Malaysia-Singapore-Brunei, Official Catholic Church Directory 2018; Diocese of Sabah, Sabah Anglican Diocesan Directory, Kota Kinabalu, 2018, 13-14; Politer Sambal, Report for Assembly Meeting in Basel Christian Council of Malaysia, 2018, 1-3; Diocese of Sabah, Sabah Methodist Directory, 2018; Protestant Church of Sabah, Report for Assembly Meeting in Protestant Church of Sabah, 2018; Baptist Church, Malaysian Baptist Convention, 2018). 사바 거주 한인 선교사님이 직접 교단 본부를 찾아가서 얻은 자료를 참고함.

35 전 사바주지사 하지지 누르 (Hajiji Noor)는 크리스마스 때 교단 별로 재정을 후원하였다. 교회들도 이에 호응하여 정부를 위해 기도하고 정부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였다. "SABAH COUNCIL OF CHURCHES RECEIVED EARLY CHRISTMAS GIFT BY STATE GOVERNMENT," <https://cmsabah.gov.my/2020/12/16/sabah-council-of-churches-received-early-christmas-gift-by-state-government/> (accessed August 10, 2021)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021년 2월7일 현재 말레이시아는 음식 구입과 의료 등 필수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전면적인 봉쇄정책(MCO, Movement Control Order)을 시행하고 있다. 교회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렇지만 모스크에서는 500명까지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³⁶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를 기독교 종교탄압으로 보고 있다. 지역간 이동이 제한이 되어서 현지 교회들이 해왔던 구제사업과 선교사역은 거의 중단이 된 상황이다.

3. 무슬림 에빗 류(Ebit Lew)

이런 상황에서 최근 동 말레이시아 화교 기독교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발생했다. 이슬람으로 개종한 중국계 무슬림인 에빗 류(Ebit Lew)³⁷는 2021년 1월 31일에 그의 소셜 미디어에 동 말레이시아 어촌지역에서 구제사역을 한 일을 올렸다. COVID 19로 인해서 특히 농촌이나 어촌지역에 살고 있는 자들과 도시 근로자들 등이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빗 류가 동 말레이시아 바자우 라웃(Bajau Laut)³⁸이 거주하는 어

36 “Melaka allows congregational prayers with maximum of 500 worshippers,” *malaymail*, January 27, 2021, <https://www.malaymail.com/news/malaysia/2021/01/27/melaka-allows-congregational-prayers-with-maximum-of-500-worshippers/1944551> (accessed January 27, 2021).

37 “Ebit Lew Isn’t Your Average Ustaz—He’s Also An Entrepreneur, Philanthropist, & Celebrity,” *Vulcan Post*, <https://vulcanpost.com/721816/ebit-lew-biography-malaysian-famous-ustaz/> (accessed May 14, 2021).

38 “Bajau Laut (Sea Gypsies),” <http://www.pulaumabul.com/bajau-laut-sea-gypsies/> (accessed February 7, 2021); Southeast Asia Link, *The Peoples of Malaysia, Brunei, & Singapore* (SEALINK 2006), 21–22. 사바종교국에서는 에빗 류의 전도활동을 칭찬을 하지만 이들은 원래 서류상 무슬림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고 발표하였다. Julia Chan, “Sabah mufti: Ebit Lew’s mass conversion stands, but most Bajau Laut already Muslims,” *malaymail*, February 2, 2021,

촌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태블릿 컴퓨터를 지급하고 도로를 놓아주는 등 사회구제 사업을 하였다. 바자우 라웃 사람들은 바다 집시(Sea Gypsies)라고도 불리는데 거의 육지에 나오지 않고 해상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전도 종족들이다. 그의 구제사업 덕분에 마을 주민 157명이 최근 이슬람으로 집단개종을 했다.³⁹ 에빗 류는 또한 적극적으로 가톨릭 교회들과 개신교 교회들을 방문해서 구제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의 이슬람 개종을 시도하고 있다.⁴⁰ 무슬림들은 그의 활동에 대해 열광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현지 기독교인들은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간 현지 화교교회들은 이들 주민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조심스럽게 해왔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화교 기독교인들은 적극적으로 정부에 중재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 기독교인들은 팬데믹 상황을 이용해 정부가 교묘하게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말레이시아 법으로 기독교인들은 무슬림 뿐만 아니라 농촌에 있는 원주민들에게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무슬림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을 포섭하고 개종 시키고 있다고 현지 기독교인들은 보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비교적 기독교 인구가 많은 동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오랫동안 국가적으로 포교 활동을 해왔다.⁴¹

39 Sebak...157 Orang Bajau Laut Ucap Syahadah Di Depan Ustaz Ebit Lew," *kiniTV*, February 1, 2021, <https://www.kinitv.com/video/129d8abe-ce7f-4324-9daa-495b8017a06b> (accessed February 5, 2021).

40 FMT Reporters, "Ebit's church charity wins high praise," *FMT*, January 29, 2021, <https://www.freemalaysiatoday.com/category/nation/2021/01/29/ebits-church-charity-wins-high-praise/> (accessed May 14, 2021).

41 정부의 종교정책은 공식적으로 다른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필자는 조심스런 입장을 취한다. 위의 내용은 현지 기독교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어진 주관적인 판단임을 밝힌다.

이러한 종교 상황적 이해를 기반으로 말레이시아 내에서의 기독교 선교에 대한 한 제안으로 이웃의 의미와 최근에 말레이시아 신학자들 사이에 대두되고 있는 공공신학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것이 말레이와 화교 기독교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논구하고자 한다.

V. 이웃(NEIGHBORHOOD)과 공공신학(PUBLIC THEOLOGY)

1. 이웃(Neighborhood)

“이웃”이라 함은 보통 이웃, 주민, 지역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필자는 여기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는 관계”를 이웃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웃은 친구가 될 필요도 없고 서로간에 친밀한 관계를 맺을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들은 정감 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재앙이 닥쳤을 때 함께 뭉쳐서 서로 돕는 관계이다. 최근에 미국 뉴욕에서 홍수가 나서 집에 물이 차자 이웃들이 함께 돕는 것을 사회적 관계망(SNS, Social Networking Service)을 통해서 본적이 있는데 이것이 이웃의 좋은 예이다. 이런 사례들은 여러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요일 4:21). 이웃은 구체적으로 가난한 이웃들, 소외된 자들, 고아나 과부, 외국인들을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무슬림인 말레이는 화교

들의 이웃이며 그들은 외부자가 아니라 내부자이다. 화교 기독교인들이 말레이를 친구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까운 이웃으로 여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준다면 그들 또한 화교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C. S. 루이스(Lewis)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에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9)는 것은 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마 6:12)라는 말씀도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한 기독교 진리이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 대상이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루이스는 설명한다.⁴²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서 꼭 자신을 좋아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웃을 기독교적으로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좋아하거나 그들에게 애정을 느끼는 것은 다른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할 수 있는 한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정상적인 의무이다.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루이스는 기독교적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Will)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사랑의 감정을 주실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감정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⁴³ 알윈 라우(Alwyn Lau)는 말레이시아 기독교인들이 “알라” 논쟁과 말레이로 된 성

42 C. S. Lewis, *Mere Christianity: A Revised and Amplified Edition, with a New Introduction, of the Three Books, Broadcast Talks, Christian Behaviour, and Beyond Personality* (1st HarperCollins ed, San Francisco: HarperSanFrancisco, 2001). 장경철, 이종태 역, 『순전한 기독교』 (서울: 홍성사, 2018), 189-191.

43 Lewis, *Mere Christianity*. 장경철, 이종태 역, 『순전한 기독교』 (서울: 홍성사, 2018), 205-210.

경 압수 사건 등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복하지 말고 다른 뺨을 내밀며 용서하는 것이 기독교의 특성이라고 말하고 있다.⁴⁴ 이와 같이 화교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말레이를 향한 사랑을 품고 작은 행동을 실천할 때, 말레이와 화교와의 막힌 담을 조금씩 허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로 간의 긍정적인 태도는 종교간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한 대화는 말레이 무슬림과 화교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더 많은 이해와 더 큰 신뢰로 이어질 것이다.⁴⁵ 하버드 대학교 선임연구원, 모하마드 파우지 야콥(Mohamed Fauzi Yaacob)은 종교 간의 대화는 서로의 종교를 강요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는데 있다고 했다.⁴⁶ 그는 2014년 6월 1일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여 말레이시안들은 다원주의를 표방하여 국가적 통합과 세계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와사티야 운동”(wasatiyyah)을 강조했는데 와사티야는 아랍어로 “중도, 균형, 정의 또는 타월”을 의미하며 대화, 상호 존중, 다른 종교, 문화, 인종들을 수용해서 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공평한 사회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⁷

이스마일 알 파루키(Ismail al Faruqi)는 미국 9/11 사태 이후 종교적 근본주의(religious fundamentalism)와 종교적 극단주의(religious extremism)에 대한 해결책으로 종교적 온건주의(Religious Moderation)를 표방하였다. 그는 이슬람 움마(Islamic Ummah)

44 Alwyn Lau, “Forgiveness As Singularity: The ‘Allah’ Controversy in Malaysia and the Church’s Public Discourse of Cheek-Turning.” *Dialog* 57, no. 1 (2018): 40-46.

45 McAmis, *Malay Muslim*, 121.

46 Chai, “Christian Mission in Religious Pluralistic Society with Special Reference to Malaysia,” 162.

47 “Dr. Mohamed Fauzi Yaacob gave a lecture on Pluralism in Malaysia,” *The Institute of Oriental Philosophy*, <http://www.iop.or.jp/ScholarlyExchangeTokyo2014.html> (accessed May 14, 2021).

를 “인류의 메디안”(the median among the peoples of mankind) 또는 꾸란에 있는 “움마탄 와사탄”(ummatan wasatan)이라고 했다 (2: 143). 그는 “알-와사티야”(al-wasatiyyah)의 개념을 정의, 선, 극단을 멀리하는 중용의 단계라고 설명했다. 움마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악을 멀리하고 개인과 집단의 행복(felicity)를 추구하고 했다. 말레이시아 국제 이슬람 대학교(IIUM, International Islamic University Malaysia)의 교수인 카말 하산(Kamal Hassan)은 파루키의 종교적 온건주의를 말레이시아에 적용을 하였다. 문제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이 무슬림과 비 무슬림이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세속주의를 받아들이기, 복지와 사회 부분에 집중하기, 정치적인 이슬람을 배격하기, 자유주의 수용하기, 이슬람의 다양한 종파를 거절하기 (사라피 Salfi, 와하비 Wahhabi, 이란, 아라비아, 중동의 시아 Shi‘ah of Iran, Arabia, and the Middle East) 등의 문제에서 서로 다른 이견이 있음을 인정했다.⁴⁸ 종교간의 대화를 할 때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인지하고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피상적인 대화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말레이시아인 신학자인 케논 사다얀디 바투마라이(Canon Sadayandy Batumalai)는 무슬림 이웃에 대한 기독교인의 반응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한다고 제의한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말레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⁴⁹ 화교들은 말레이를 대할

48 Kamal Hassan, “Al-Wasatiyyah As Understood and Defined by Islamic Scholars in Contemporary Singapore and Its Consistency with Ismail Al Faruqi’s Vision of Ummatan Wasatan,” *The American Journal of Islamic Social Sciences* 28, no. 3 (2011): 35-41.

49 McAmis, *Malay Muslims*, 121-122.

때, “수용자 중심”(receptor oriented)으로 대해야 한다.⁵⁰ 수용자 중심이라 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문화적인 상황 안에서 대화를 하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은 유대의 관습과 생활 방식을 따르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말레이시아 말레이 가운데 오셨다면 그들이 쉽게 이해하고 반응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하셨을 것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을 것이다.⁵¹ 화교 기독교인들은 말레이의 종교와 문화와 세계관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를 하며 적극적으로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2. 공공신학(Public Theology)

말레이시아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와 연합을 위해 말레이시아 헌법 153 조항은 말레이시아가 다원주의 사회(pluralistic society)로서 종교 공동체들이 공존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슬람이 14세기에 말레이시아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기원전 3세기에 힌두교와 불교가 있었다.⁵² 그리고 전 총리 나집(Najib)이 하나된 말레이시아(One Malaysia or Satu Malaysia in Malay) 정책을 도입해서 민족간, 종교 간의 단합과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다.⁵³ 말레이시아 화교 기독교인들은 헌법이

50 Charles H. Kraft, *Communicating Jesus' Way* (Pasadena, Calif.: William Carey Library, 1999), 55.

51 Jaewoo Jeong, “Communicating with Muslims: The Hui in China”, *Muslim Christian Encounter*, 13, no.1 (2020): 225-226.

52 Chai, “Christian Mission in Religious Pluralistic Society with Special Reference to Malaysia,” 156.

53 Joshua Foong, “Understanding Malaysia,” *The Star*, December 15, 2010,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10/12/15/understanding-1malaysia> (accessed May 14, 2021).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종교 공동체들의 공존을 정부에 요구를 하며 하나 되는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개 교회 차원을 넘어 공적으로 사역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헌법에는 “말레이는 무슬림이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결론적으로, 말레이시아는 종교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말레이시아 신학자인 화용(Hwa Yung)은 즉각적인 복음화(Evangelism)와 선교(Missions)대신에 기도와 사회참여를 권하고 있다.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전인구원(whole person)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캄웁응(Kam Weng Ng)은 원칙에 입각한 다원주의(principled pluralism)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공동의 선을 위해 사회참여를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기구가 카이로스 대화 네트워크 (Kairos Dialogue Network)이다.⁵⁴

선교의 두 가지 측면, 즉 복음전파(evangelism)와 사회참여(social concern)는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 논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만, 이를 통합하는 총체적/통전적 사역(holistic/wholistic)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Wright)는 선교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복음전파와 사회참여 이 두 가지를 묶는 것은 십자가의 메시지이다.⁵⁵ 특히 COVID 19와 같은 대재앙이 발생했을 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 아픔에 동참을 해야 한다(레 19:13-18, 잠 25:21). 그리고 고난 가운데 같이 슬퍼하며 애통해야 한다. 기독교

54 Chai, “Christian Mission in Religious Pluralistic Society with Special Reference to Malaysia,” 165-166.

55 Craig Ott, Stephen J. Strauss, and Timothy C. Tennent. *Encountering Theology of Mission: Biblical Foundations, Historical Developments, and Contemporary Issues*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10), 149-156.

역사가인 로드니 스타크(Rodney Stark)은 기원 후 165년과 251년에 로마에 큰 역병이 있었다고 기록하면서 초대 기독교인들의 헌신적인 사랑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로마의 복음화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그는 주장한다.⁵⁶

최근 말레이시아에 대두되는 신학이 “공공신학(Public Theology)이다. 1974년 마틴 마티(Martin Marty)가 “공공신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소개했다. 그는 로버트 벨라(Robert Bellah)의 “시민종교”(civil religion)에 응답하며 공공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또한 데이비드 트레시(David Tracy)는 “공공”이라는 말은 세가지 영역, 즉 교회, 학교, 그리고 사회를 포함한다고 했다. 공공신학은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 서로 합의와 협력을 통해 공공의 선을 만들어가는 신학을 말한다.⁵⁷ 기독교가 교리에 집착하여 교회와 신학교 내에서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종교들과 대립을 하는 종교가 아니라 공동체의 평화와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신학을 말한다. “어떻게 신학을 할 것인가”의 질문에는 반드시 “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가 따라오게 된다.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에서 화교 기독교인들은 무슬림인 말레이와 같이 다원화 사회(pluralistic society)인 말레이시아의 빈곤퇴치, 교육, 인권 등 공공의 선과 복지를 위해, 종교 공동체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그 동안 화교교회들은 오순절 운동이나 개인의 영성과 구원문

56 Rodney Stark, *The Triumph of Christianity: How the Jesus Movement Became the World's Largest Religion* First HarperCollins paperback ed. (New York: HarperOne, an imprint of HarperCollins, 2012), 113.

57 Sebastian C. H. Kim and Katie Day, eds. *A Companion to Public Theology*. Brill's Companions to Modern Theology, Vol 1 (Leiden: Brill, 2017), 2-3.

제를 주요과제로 삼았다. 그로 인해 교세의 수적성장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웃과 사회와의 간격은 더 커지게 되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웃인 말레이에게 공공신학의 관점으로 공공의 안위와 번영을 위해 같이 협력하며 사랑을 베풀어야 할 시점이다.

VI. 나가는 말

화교들은 중국에서의 종교적인 핍박과 경제적인 이유로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가나안인 말레이시아에서 뿌리를 내리며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였다. 그들이 정착을 하는 과정에서 말레이와 때로는 협력을, 때로는 갈등관계에 있었다. 비록 정치적으로 “5·13 사건”(May 13 Incident)을 겪고, 경제적으로 “새로운 경제정책”(NEP), 종교적으로 “팡코르 조약”(Pangkor Engagement)으로 인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주류 민족인 말레이와의 관계가 순탄치 않았다. 그렇지만 화교 기독교인들은 그간 불편한 이웃인 말레이와 관계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다.

무엇보다 화교들이 말레이와의 관계에서 아픈 과거에 대해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과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화교 기독교인들은 개인의 구원과 교회의 부흥 등 교회의 내적인 부분에 신경을 쓴 나머지 사회에 대한 관심과 책임의식이 약했던 것은 사실이다. 다행히 최근에 대두가 된 “공공신학”(Public Theology)을 통해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사회 공공의 선과 복지를 위해 이웃인 말레이와 함께 하며 사

회의 여러 이슈들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며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본
을 보여주어야 한다.

■ 참고문헌

- 이한신. “이슬람과 말레이시아 포교 방법과 기독교 선교 전략을 위한 비교 연구.” Th.M diss.,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Chai, Teresa. “Christian Mission in Religious Pluralistic Society with Special Reference to Malaysia.” in *Christian Mission in Religious Pluralistic Society*, edited by Daniel J. Kim. 154–170. Seoul Korea: East–West Center for MRD, 2019.
- Chen Lip Sion. “A Brief History of the Basel Christian Church of Malaysia.” 2003. 미출간 소논문.
- Dreyer, Edward L. *Zheng He: China and the Oceans in the Early Ming Dynasty, 1405–1433*. New York: Person Longman, 2007.
- Haines, Joseph Harry. *Chinese of the Diaspora*. London: Edinburgh House Press, 1965.
- Jeong, Jaewoo. “Communicating with Muslims: The Hui in China.” *Torch Trinity Center for Islamic Studies Journal* 13, no.1 (2020): 206–246.
- Hassan, Kamal. “Al–Wasatiyyah As Understood and Defined by Islamic Scholars in Contemporary Singapore and Its Consistency with Ismail Al Faruqi’s Vision of Ummatan Wasatan.” *The American Journal of Islamic Social Sciences* 28, no. 3 (2011): 35–52.
- Kim, Sebastian C. H, and Katie Day, eds. *A Companion to Public Theology*. Brill’s Companions to Modern Theology, Vol 1.

- Leiden: Brill, 2017.
- Kraft, Charles H. *Communicating Jesus' Way*. Pasadena, Calif.: William Carey Library, 1999.
- Kua, Kia Soong, and Suaram. *May 13: Declassified Documents on the Malaysian Riots of 1969*. Petaling Jaya, Selangor, Malaysia: SUARAM, 2007.
- Lau, Alwyn. "Forgiveness As Singularity: The 'Allah' Controversy in Malaysia and the Church's Public Discourse of Cheek-Turning." *Dialog* 57, no. 1 (2018): 40-46.
- Lee, Raymond L. M. and Ackerman Susan Ellen. *Sacred Tensions: Modernity and Religious Transformation in Malaysia Studies in Comparative Religion*. Columbia, SC: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97.
- Lewis, C. S. *Mere Christianity: A Revised and Amplified Edition, with a New Introduction, of the Three Books, Broadcast Talks, Christian Behaviour, and Beyond Personality*. 1St HarperCollins ed. San Francisco: HarperSanFrancisco, 2001. 장경철, 이종태 역. 『순전한 기독교』 서울: 홍성사, 2018.
- Lian, Kwen Fee. *Race, Ethnicity, and the State in Malaysia and Singapore*. Leiden: Brill, 2006.
- McAmis, Robert Day. *Malay Muslims: The History and Challenge of Resurgent Islam in Southeast Asia*. Grand Rapids, Mich.: W.B. Eerdmans Pub, 2002.
- Nida, Eugene A. *Customs and Culture: Anthropology for Christian*

- Missions*. New York: Harper, 1954.
- Ott, Craig, Stephen J. Strauss, and Timothy C. Tennent. *Encountering Theology of Mission: Biblical Foundations, Historical Developments, and Contemporary Issues*.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10.
- “Overseas Chinese.” New World Encyclopedia, last modified May 15, 2013, http://www.newworldencyclopedia.org/entry/Overseas_Chinese (accessed Aug 15, 2015).
- Pan, Lynn, and Center Chinese Heritage. *The Encyclopedia of the Chinese Oversea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 Provenchal, Ronald. “Islam in Malaysia and Thailand.” In *The Crescent in the East: Islam in Asia Major*, edited by Raphael Israeli. London: Curzon Press, 1982.
- Purcell, Victor. *The Chinese in Malaya*.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48.
- Rajashekar, J. Paul William, Lily Wu, and Pongsak Limthongviratn. *Asian Lutheranism Which Way?* Chicago: ELCA Commission for Multicultural Ministries, Dept. for Asian Ministries, 2000.
- Stark, Rodney. *The Triumph of Christianity: How the Jesus Movement Became the World’s Largest Religion*. First HarperCollins paperback ed. New York: HarperOne, an imprint of HarperCollins, 2012.
- Stearns, Peter N., and William L. Langer. *The Encyclopedia of World History: Ancient, Medieval, and Modern, Chrono-*

logically Arranged. 6th ed. Boston: Houghton Mifflin, 2001.

Wan, Enoch. "Mission among the Chinese Diaspora: A Case Study of Migration and Mission." *Missi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31, no. 1 (2003): 35-43. <https://doi.org/10.1177/009182960303100106>.

Wu, Xiao An. *Chinese Business in the Making of a Malay State, 1882-1941: Kedah and Penang*. Chinese Worlds. London: RoutledgeCurzon, 2003.

Wright, N. T. *God and the Pandemic: A Christian Reflection on the Coronavirus and Its Aftermath*.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2020.

■ ABSTRACT

Chinese and Malays : Uncomfortable Neighbor

Jae Woo Jeong

This article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nese and Malays in Malaysia from a historical and missiological perspective. Modern Malaysia was formed through the complex interrelations among Britain, the Chinese, and the Malays and their respective pursuit of political, economic, and religious interests. The spread of Chinese economic and political influence has been causing backlash from other ethnic groups, especially the Malays. Since its foundation, Malaysia, a multi-ethnic country, has been advocating unity and striving to remove division, but conflict between Chinese and Malay ethnic groups are ongoing due to the May 13 Incident, New Economic Policy, and a series of religious dispute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s pro-Islamic policy since the COVID-19 pandemic is intensifying tensions, as with the case of Ebit Lew.

Chinese Christians have mainly been evangelizing non Malay

people in Malaysia. Now they need to become good neighbors with Malays. In addition, Chinese churches should be more actively involved in the interests of the state and society, based on Public Theology.

Keywords: Overseas Chinese, Malay, Conflict, Public Theology, Malaysia